2022 재안파종회장친목회 정기총회 개최

재안파종회장친목회(在安派宗會長親睦會: 회장 권계동)는 7월 29일 저녁 7시 안동시 옥동 복주3길 '제주복어'식당에서 회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재안파종회장친목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권숙동 안동종친회장을 비롯하여 권기호 파종회장협의회 고문, 권주연 부호장공파종회장, 권세목 복야공파종회장, 권오수 동정공파종회장, 권중근 시중공파종회장, 권영택 정조공파종회장, 권오익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기원 친목회 사무국장, 권영건 전 부호장공파종회장 등 10명이다. 권계동 파종회장친목회 회장, 권인탑 파종회장협의회 고문, 권기수 별장공파종회장, 권순협 전 별장공파종회장, 권오춘 부정공파종회장 등 5명은 유고(有故)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 국장은 "권계동 회장이 개인 볼일이 있어서 자기한테 위임을 하고 총회를 갖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식순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수입, 지출의 총결산을 보고했다.

임원개선은 연장자 순위에 따라 권기호 고문을 신임 회장으로, 권숙동 종친회장을 부회장으로 각각 선임하고 권기원 사무국장은 유임시켰다. 신임 권기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회 발전을 위하여 내실을 쌓는 동시에 열심히 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회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을 나누면서 식사를 끝마쳤다.

이 친목회는 격월제로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며 홀수 달 마지막 주 금요일이 정일(定一)이다. 〈보도부장 권영건〉

2022년도 안동종친회 정기총회, 권철환씨 종친회장으로 선출

안동종친회(회장 권숙동)는 7월 7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권씨 종친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2년도 안동종친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권계동. 권재주. 권주연 고문을 비롯하여 권종준. 권오극. 권기호. 권기덕. 권기만. 권경웅 원로회원, 회장단,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 총무협의회, 청.장년회, 부녀회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 권광택 경북도 의원, 권기윤. 권기익 안동시 의원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한 후 자리를 떠났다.

권오익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는 국민의례, 시조묘소 망배, 회장 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2021년도 결산보고, 2022년도 예산안 심의, 2022년도 신년인사회 결산보고, 임원개선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숙동 종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19년 안동종친회장을 맡아 복회 한마음대회를 거창하게 개최한 이후 코로나19가 발생, 지난 3년간 신년인사회, 복회 한마음대회, 지역종친회 등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해서 무척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4년 5개월 7일째 회장직을 맡아오는 동안 종친회의 화합과 단결,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지역 어느 성씨도 따라올 수 없는 저력을 우리 안동권문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회장 인수인계 때 이월금이 2천5백여만 원이었으나 이번 이월금은 8천여만 원으로 살림을 잘살았음을 자부한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회장 인사말이 끝나자 권오익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권영수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2021년도 결산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2022년도 신년인사회 결산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다.

임원개선에서 권재주 고문을 임시의장으로 선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친회장 후보를 만장일치 추대로 선출할 것인지 아니면 투표로 선출할 것인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권 임시의장은 두 후보의 자기소개를 부탁하자 한 후보가 "회장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자진 사퇴를 하는 바람에 다른 후보가 종원들의 추대를 받아 회장에 선출되었다.

제30대 안동종친회장으로 선출된 권철환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권문의 어른들을 잘 모시고 안동권씨를 최고의 명문으로 만들겠으며 또 능동재사 주변을 정비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회장은 "제발 남을 비방하지 말고 서로 칭찬하여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신임 권철환(權哲煥. 67. 36世. 별장공파)회장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전 한국청년회의소 회장, (주)한국문화방송 대표이사를 각각 역임했으며 현재 (사)안동제비원 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자리에서 권오갑, 권세종 두 사람을 감사로 선출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때문에 다 같이 점심식사를 할 수 없어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비 1만원과 4개들이 치약 1통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건〉

제8대 권석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퇴임식

제8대 권석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퇴임식이 8월 26일 오전 11시 시설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시내 일부 기관 단체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안동권씨대종회 고문, 권오익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석환 안동문화원장, 권영직 안동권씨 안동시내 읍.면.동 지회장협의회장, 권기운 복야공파 청장년회장, 공단 직원, 친구,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국민의례, 이사장 약력소개,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 축사, 퇴임사, 단체 사진촬영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약력 소개에서 권 이사장은 1979년 공무원에 임용되어 약 40년간 안동시에 근무하면서 문화 복지, 경제 산업, 의회사무 등 3개 국장을 역임하면서 행정 전 분야에 두루 근무하였다. 특히 문화 예술 및 관광산업육성, SK 백신공장 안동유치 추진, LNG 발전소 건설 착공 및 준공, 낙동강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을 이뤄냈다. 2019년 1월부터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약력 소개가 끝나자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공로패를, 시내 기관장 모임인 삼우회에서 기념패를, 안동농협이 감사패를 퇴임하는 권 이사장에게 각각 전달했다.

권석환 안동문화원장은 축사에서 "권 이사장은 40여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안동시 과장, 국장, 이사장을 거쳐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권석순 이사장(복야공파 용만문중)은 퇴임사에서 "시설공단에서 3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감동경영, 안전경영 등 5대 경영사업을 실천하여 작년, 올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공단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과 임.직원 덕분으로 잊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퇴임사가 끝나자 시설공단 임·직원, 가족, 안동권씨복야공파 임원, 친지 등의 순으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날 안동권씨복야공파종회, 안동권씨복야공파 청장년회, 삼수회(안동시 기관장 모임), 웅부산악회, 안동 풀라워 등에서 퇴임을 축하는 대형화환을 보내왔다. 〈보도부장 권영건〉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26)

역사는 '데자뷔'(기시감旣視感, 프랑스어: Déjà Vu ; 처음 보는 대상이나, 처음 겪는 일을 마치 이전에 보았다는 느낌을 받는 이상한 느낌이나 환상을 말한다)처럼 반복된다고 했던가?! '나라는 사람의 몸이라면 역사는 사람의 영혼이다.'(행촌杏村 이암李嵒, 1297~1364),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1880~1936),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B. 크로체Croce : 이탈리아 철학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E.H.카Carr : 영국 정치가, 역사학자) 등을 참고하여, 근현대 우리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역사의 진실을 깨달아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미래를 희망차게 조망하는 것이다. 21세기 초 현재(2022.8) 우리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즉 약 150여 년 전부터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정세'에 세계열강이 주목했던 당시와 '국제질서 재편'을 목격하고 있다. 2,3년간 '코로나19의 판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의 선진국화' 등이다.

갑오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1894년)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다음해에 일본 낭인과 군인들이 민비(명성황후)를 시해(弑害, 1895.8.20)하고 조선의 친일내각 구성에 의한 이른바 '을미개혁(1895.8.24)'을 단행하였다. 일본이 제1(1902), 2차(1908) 영일(英日) 동맹과 일본 내각 총리대신 까쓰라 타로(桂太郎)와 미국 육군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Taft)의 미일(美日) 밀약 및 러일(露日) 전쟁(1904) 후에 러시아와 체결했던 모든 조약과 협정 폐기선언(1904.5.18)을 하였고, 제1(1904.8.21), 2차 한일협약 등으로 이른바 '을사늑(보호조)약(1905.11. 17)'에서 '경술국치(한일합방; 일한병합, 1910.8.29)'로 한국(당시 대한제국)은 망국의 길로 들어섰었다.

실제로 동학농민전쟁 이후 동학군의 주장을 일정정도 수용한 고종(高宗)의 '홍범14조'와 '독립서고문'을 1894.12.12에 종묘(宗廟)에 고하였다. 이른바 '갑오경장(甲午更張)'이다. 그러나 그 다음해인 1895년 윤5.20. 고종은 갑오경장을 비판하고, '을미개혁'이라는 이른바 '친일내각(제3차 김홍집 총리대신; 1895.7.5~8.24)'에서부터 1945년까지 50년간을 실질적 일제강점기라고 할 수도 있다.

러일전쟁 개시 100돌이었던 2004년에, 100년 전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난 대량 살육 관련기사가 한국과 주변국의 신문지상을 장식했다. 한국의 보수 신문들은 '그때'와 '오늘'의 정세 불안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국가 부강의 필요성과, 한국을 보호할 수호천사로서 미국의 역할을 역설했다. 하지만 100년 전 미국과 영국 등이 일본의 한반도 강탈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박노자, 『우리가 몰랐던 동북아시아』, 한겨레출판, 2006. 참조) 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 신문이나 서울대 이(李) 아무개(某) 교수 등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개명군주로서 일본의 강점과 견제를 하기 위해 미국에 의지하여 그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였다.

한편 '뉴라이트'라는 글자 그대로 새로운 우파 단체는 한국에 대한 36년 간의 일제강점을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요설(饒舌)로 국가민족의 반(半)노예시대를 미화하고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하여 광복 후 독재정치·군사쿠데타와 그 정부들을 찬양하며 아직도 친일파 청산을 가로 막고 있다. 급기야 당시 식민지나 점령지 부녀자들을 강제로 징집하거나 납치하여 일제군대(이른바 '황군皇軍')의 성적 노예상태로 몰고 간 군위안부(정신대) 존재를 부정하는 망언들이 아직도 경복궁 근처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21년 간 1059차 매주 수요 집회(생존한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해 퍼부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수요집회'의 정식 명칭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하여 지난 2022년 8월 18일자로 30년간 1525차 집회를 가졌다. 2011년 12. 14.자로 1,000차 집회 때, 처음 집회를 시작할 1992년 1월 8일 당시 234명의 정신대 할머니가 19년 사이 대부분 고인이 되고 63명이 남은 상태였다. 2011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위안부 관련 소송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정신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학자들과 우파단체들도 있는 현실이다. 2012.7.4.에는 옛 일본군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일본군 조선인 정신대 평화비)에 말뚝(소녀상 옆에 "타케시마는 일본땅"-역사는 진실은 〈일제는 1905.2.22.에 한국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개칭하고 일본 시마네島根현縣에 편입〉-이라는 한글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을 설치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를 서울중앙지검에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 과거(1871년 신미양요, 1876년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에서 현재(2022년)까지 약 150년 동안의 역사를 실체적 진실에 대해 양국 국민들로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의 왜곡날조나 망언 등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내지 반역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동서고금의 진리(실)과 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다."와 "민중의 소리(Vox Populi)는 하느님의 소리(Vox Dei)다."

(다음호에 계속)

[인연의 끈]

한국차문화박물관 관장 권진혁(權進赫, 추밀공파 36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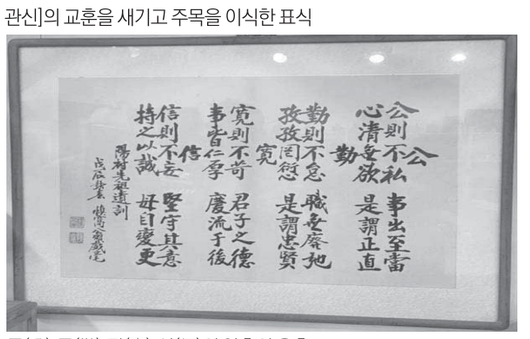
지난 8월25일, 시중공파 옥소 권섭 선생과 관련한 제반 프로젝트를 모색하기 위하여 5년전 산동성 조장시 권현비 사업과 관련하여 의기 투합 했던 세 사람이 다시 제천에서 만났다. 여기서 옥소 선생 기념시비를 방문하고 옥소산(玉所山) 묘소에 참배하고 조선 측백숲길과 티담(TEA-담) 연잎밥집(의림대로 11길 4-1), 한국차박물관 등을 방문하였다. 여기서 옥순봉 옥소 권섭묘소라 하지만 원래 그 산의 이름은 옥소산이었다니 바로 잡아야 하고 표지판도 없어서 헤매는 일이 있고 묘소도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하니 이는 대종회와 시중공파 문중에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옥소산(玉所山) 백취옹(百趣翁) 옥소(玉所) 권 섭(權 燮) 선생 묘소길'로 명명하고 문학도이거나 권문의 족친이라면 반드시 순례하는 코스와 시비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늦게 알게 되어 찾아간 권진혁(權進赫,추밀공파 36世) 족현(族賢)은 양촌 선생 후예로 예천 출신이나 세명대학교에서 오래 봉직하면서 제천에 정착하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보이차에 관심을 가져서 퇴직 후 오년 전 제천시 봉양읍 소재 폐교(봉양읍 국사봉로 741)를 확보하고 이를 잘 가꾸고 다듬어서 '한국차문화박물관'을 개관하였다. 늦은 시간이지만 인연길을 따라 방문하니 제초작업으로 전신에 땀을 흠뻑 쓰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개인의 차박물관 중에서는 독보적인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관람도 못하고 품차의 시간도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 규모나 보유한 차의 수준은 상당한 느낌이었다.

음다 체험실에서 손수 팽주(烹主)로서 보이차 생차 10년산을 맛보여 주는 권진혁 관장. 좌측 아래는 [공근관신]의 교훈을 새기고 주목을 이식한 표식



공(公),근(勤),관(寬),신(信)의 양촌의 유훈

차박물관 소개

본 기자도 20년 전 운남성 거주시 운남농대의 '보이차 연구소' 등과 교류 한바 약간의 보이차 상식으로 볼 때도 그런 느낌이었다. 권 관장은 중국운남성 보이차 협회 한국 대표처를 겸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술이나 서각에도 상당한 조예를 보여서 국전에 입선하고 서각의 작품은 박물관 벽면에 많이 걸려 있었다.

이후 많은 족친들의 방문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그의 저서 '차를 알고,나를 알다.'에 정성스런 휘호를 받고 이제 새로운 '권문의 명소'로 거듭 날 것이라 믿으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그리고 권관장의 선친인 권오영 선생이 좌우명으로 양촌의 유훈과 또 칠남매가 선친의 70년 기른 마당의 향나무를 옮겨 심고 추모의 글을 새긴 오석을 바라보며 새삼 옷깃을 여미는 하루였다.

글 사진 권오철 기자